

북구 풍향동·두암2동 → 동구 편입 '구간 경계조정' 해당 동 주민 찬성 의견 우세

1,200명 설문, "찬성" 39% "반대" 32%

광주시 북구 풍향동·두암2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구간경계조정에 대해 해당 동 주민 10명 중 4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동구청은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월22일부터 26일까지 풍향동 주민 500명, 두암동 주민 700명 등 모두 1천200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별 북구에서 동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1%(469명)는 찬성, 31.9%(383명)는 반대, 28.9%(347명)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

동별로는 두암3동에서 ▲찬성 44.2%(309명) ▲반대 28.4%(199) ▲상관없다 27.3%(192)였고, 풍향동에서는 ▲찬성 32%(160명) ▲반대 36.5%(184) ▲상관없다 31.2%(156명)의 분포를 보였다.

두암동에서 찬성표가 다소 많은 것은 동구청이 국민체육센터(예산 100억원) 건립 등 각종 사회복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연여자가 많은 풍향동은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명함·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의 주소지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동구

■구간 경계조정 주민 여론조사 (단위:명, 1인인 %)

	풍향동	두암3동	계
찬성	160(32)	309(44.2)	469(39.1)
반대	184(36.8)	199(28.4)	383(31.9)
상관없다	156(31.2)	191(27.3)	347(28.9)
무응답	0(0)	1(0.1)	1(0.1)
합계	500	700	1200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여론 조사의 신뢰수준은 95%로, 최대 허용오차는 ±2.83%포인트이다. 동별 최대 허용 오차는 풍향동 ±4.38%, 두암3동 ±3.70%이다.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 대상은 19세 이상으로 정했으며, 남녀 비

율은 반반이다. 앞서 지난 4월 광주시·동구청·북구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광주시 동구·북구간경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광주시가 여론조사를 한차례 더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 구간경계조정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법(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해당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도 행정부에 '조정 건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경우 주민투표에 따른 3억원의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입석대·서석대 '관망대' 설치

무등산 보전사업 30억원 투입

탐방로 만들고 생태해설판도



서석대 하단부

천연기념물 제465호인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 등 주상절리대에 관망대와 탐방로, 생태해설판이 설치된다.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해 직접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대신, 관람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9일 "내년부터 모두 30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무등산 주상절리대에 관망대와 탐방로, 생태해설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단계로 내년 1월에 관망데크 설치와 서석대 정상 등산로(0.9km) 정비에 들어가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올 초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상절리대 직접 접촉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면서도, 관람이 양호한 지역에 전망시설을 설치해 천연기념물 보호와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상절리대 보존계획'을 세웠다.

시는 입석대 10m전망, 서석대 정상, 서석대 아래쪽 등 3곳에 관망대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서석대의 경우 아래쪽 절경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관망대가 최대한 경관을 저해하지 않게 그 규모가 40㎡를 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시는 주상절리의 생성과정 등을 알리는 종합안내판, 경관해설판도 설치한다.

시는 장봉재~서석대(1.7km) 구간의 콘크리트와 철

조망 등을 철거하고, 목재데크 길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주상절리대인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가 지난 2005년 12월 1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탐방객이 늘면서 훼손이 잦아 지난 7월부터 입석대와 서석대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관리인 2명을 배치해 출입을 제한해왔다.

주상절리대 출입제한 조치는 교수·무등산보존단체 등 관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취해졌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의 석영안산암질 용암이 냉각되면서 물리적 풍화에 의해 형성된 화산활동의 산물로, 수직으로 솟아오른 돌기둥과 동서로 길게 발달한 돌 병풍이 빼어난 지질 경관을 이루고 있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소장은 "입석대·서석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탐방객들이 적절히 관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시민 만족 행정'

5대 브랜드 선정

광주시가 수돗물 병물공급 등 5대 사업을 행정의 고객인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대표 브랜드로 선정해 발표했다.

광주시는 브랜드과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수돗물 '빛여울수' 병물공급 ▲찾아가는 안전1등 초등학교 만들기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팀 운영 ▲SMS이용 활성화 추진 ▲소방교육 CD앨범 제작보급 등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상수도본부의 병물 수돗물은 지난 10월 제88회 전국체전에 5만병이 공급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안전본부의 '찾아가는 안전1등 초등학교 만들기'는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소방안전 교육이다.

투자유치본부의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팀 운영'은 국내외 기업 상담팀을 구성,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 투자유치 시책이다.

정보화담당관실의 'SMS(문자메시지 전송) 이용 활성화'사업은 민원처리상황 등을 문자 메시지로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보내며 고객만족 제고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소방학교는 8개 교육과정의 현장체험과 학교정보 등에 대해 CD 앨범을 제작하여 교육효과를 높였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 첫 국제 애견 쇼

견들이 참가했다.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광주인터내셔널 도그쇼&애완용품 전시회'. 한국애견협회(KKC)가 지난 7일부터 마련한 이번 쇼에는 1천마리의 순종 애견들이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축 웨딩홀 승인 안받고 배짱 영업

결혼식 3차례 진행

신축 중인 광주의 한 웨딩홀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시작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9일 광주시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한 현재 공작물이

90%를 보이고 있는 서구 치평동의 J컨벤션웨딩홀(4천60㎡)이 구청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 철골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난 8일 결혼식을 세 차례 진행했다.

J웨딩홀 측은 미리 예약을 받은 고객들에게 공사지연으로 결혼식을 할 수 없다며 계약 취소를 선택했으나, 일부 예비부부들이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할 수 없이 예식을 진행했다는 입장이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 웨딩홀은 앞서 지난 10월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김모(57·영광군 염산면)씨가 숨지고, 다른 인부 3명이 다쳤다.

서구 첫 女高 내년 개교

30학급 규모 상일여고 ... 3개 초등학교도 신설

서구지역에 처음으로 여고가 들어서는 등 내년 광주에서 4곳의 신설 학교가 생긴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신설되는 학교는 상일여고(서구 치평동), 하백초등학교(북구 매곡동), 한울초등학교(북구 동림동), 가칭 수완6초등학교(광산구 수완지구) 등 4곳이다. 수완6초교는 2008년 9월 개교 예정이며, 나머지는 3월 개교한다.

상무지구 상일중학교 옆 1만2천㎡ 부지에 들어서는 상일여고는 1~3학년 30학급 규모로, 내년에는 1학년 12학급 450여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상일여고의 개교로, 서구지역 여고생들의 통학거리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에는 전남고,

서석고, 광덕고, 대동고 등 남고 4곳과 상무고, 풍암고 등 공학 2곳만이 있어 이 지역 여학생들이 집과 거리가 먼 학교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생기는 하백·한울·수완6초교는 해당 지역의 과밀 학급 해소와 신도심 교육수요 충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 봤다. 하백초교는 30학급, 한울초교는 24학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완6초교는 현재 공사 중이다.

이로써 초등학교 136곳, 중학교 81곳, 고등학교 61곳, 특수학교 5곳, 각종 학교 2곳, 고등기술학교 1곳 등 286곳이던 광주시내 전체 학교수는 290곳으로 늘게 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청소년 유해업소 48곳 적발

광주시는 9일 자치구·경찰·교육청·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최근 11일동안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 등 1천15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청소년 보호법등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6곳▲밤 10시후 청소년 출입 허용 2곳▲청소년에게 담배판매 1곳 ▲ 도우미 고용 및 주류판매 노래방 23곳▲기타 15곳 등이다.

동구 황금동 S주점, 남구 봉선동 G 노래연습장, 북구 운암동 T호프방 등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영일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www.inakorea.co.kr

부용항공 무안 ↔ 타이베이

주2회 정기운항

무안 취항기념 특가 (12/20, 12/23)

대만/아류/화롄 3박4일

499,000원

대만/심천/홍콩 4박5일

799,000원

민도/호주/중국 동남아 4개 도시

무안-타이베이 380,000원

무안-타이베이 380,000원

[광주지침] Tel. 062-228-0097